

# 목포 사립고교 이중시간표·이중시험 파문

## ‘문·이과 교차과목’ 이수 짜맞추기 교과 운영

### 과목 바꿔 수업하고 시험까지 치르는 편법 동원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이중시간표를 운영하고, 시험도 이중시험지로 치러 파문이 일고 있다. 사회시간에 과학수업을, 과학시간에 사회수업을 시행하고 시험을 치르는 등 교육과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6일 전남도교육청과 목포 A고등학교 학생 등에 따르면 지난해 2학년2학기 기말고사에 학교시간표와 다른 내용의 문제를 출제해 시험을 치렀다. 문과의 ‘한국지리’

시험지에 ‘생명과학1’ 문제를, 이과의 ‘생명과학1’ 시험지에 ‘한국지리’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학생들에 따르면 ‘한국지리’ 시험지에 탄소와 수소, 산소 등의 과학문제가 출제됐고, 반면 ‘생명과학1’ 시험지에는 지도와 등고선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수업도 바꿔 진행했다. 시간표에는 문과는 ‘생명과학1’을, 이과는 ‘한국지리’를 편성했지만, 실제 수업은 문과의 경우 ‘생

명과학1’ 대신 ‘한국지리’를, 이과는 ‘한국지리’ 대신 ‘생명과학1’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주요 대학들이 대학입시에서 ‘문·이과 교차과목 이수’를 선호하자 학교에서 이중시간표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문과생도 과학 탐구영역 2개 과목 이상 이수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주요 대학들도 문·이과 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한 학생을 장의·융합형 인재로 인식해 선호하고 있다.

A고교는 교육과정에는 대학입시에서 요구하는 ‘문·이과 교차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꾸며놓고 내부적으로는 과목을 바꿔 치기한 것이다. 교육과정에 과학과목을 개설해놓고 실제 수업은 사회과목을 진행

하고 시험도 사회과목의 내용을 치르지만 성적은 과학 점수로 올려져 과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탈바꿈하는 방식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주요 대학들이 문·이과를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도록 교육과정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A고교의 경우 학생들의 제보에 의해 교육과정 편법 운영을 확인했다”며 “교육과정팀과 감사팀을 해당 학교로 보내 전반적인 감사를 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방학없는 취업준비 6일 겨울방학도 잇은 대학생들이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나와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비닐에...벼락에...빗물에...주택·상가 정전사고 잇따라

### 광주 광산구 운남·신가동 일대 300세대 한때 ‘암흑’

#### 운남동선 전원 끊긴 승강기에 갇힌 어린이 극적 구조

온실용 비닐과 낙뢰, 빗물로 하루 동안 세 차례 전력이 끊기면서 3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5일 저녁 7시20분께 광주시 소방본부로 전화가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신가동·우산동 일대 주택·상가 건물 300세

대 전기가 끊겼다는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

280세대는 10분 만에 복구됐지만 나머지 20여세대는 1시간 30여분 동안 영문도 모른 채 암흑 속에서 기다려야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부랴부랴 단전 원인조

사 및 복구에 나서 신가초등학교 인근 송전선로에 걸린 2m짜리 온실용 비닐이 ‘주범’인 사실을 확인했다.

벼려진 검은색 비닐이 바람에 날려 돌아다니다가 발전소와 배전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에 영기면서 정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날 저녁 7시 30분께 운남동 주공아파트 승강기가 멈추면서 타고 있던 7살짜리 어린이는 15분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운남동 삼성아파트·비아동 하남지구호반아파트 등에서도 주민 18명이 승강기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다.

한 시간 뒤인 이날 저녁 8시40분께 광산구 비아동 지역 전신주에 낙뢰가 발생, 0.1초 동안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했다.

6일 새벽 0시10분께는 간혹 내린 빗물이 복구 두암동 25세대에 공급되는 전력을 끊으면서 주민 불편으로 이어졌다.

한전 측은 “하루도 못 되는 시간에 이례적인 원인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 당황스럽다”며 황당해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 해질 17:36 | 달뜨기 19:42 | 달지기 0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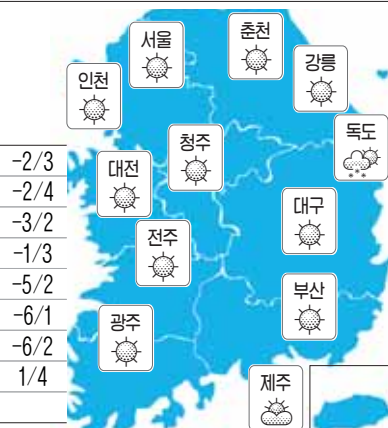
#### 추운 겨울 손을 호호 불어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4/3
목포	구름많음	-2/3
여수	맑음	-2/4
나주	맑음	-4/4
완도	맑음	-1/3
구례	맑음	-5/3
강진	맑음	-2/3
해남	맑음	-2/3
장성	맑음	-4/3

보성	맑음	-2/3
순천	맑음	-2/4
영광	맑음	-3/2
진도	구름많음	-1/3
전주	맑음	-5/2
군산	맑음	-6/1
남원	맑음	-6/2
홍산도	구름많음	1/4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	2.0~3.0	북서	1.5~2.5
남해 앞바다	북서	2.0~4.0	북서	2.0~3.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	1.5~2.5	북서	1.0~2.0
면바다(서)	북서	2.0~4.0	북서	2.0~3.0
면바다(동)	북서	2.0~4.0	북서	2.0~4.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09	15:51	08:32	21:06
여수	10:32	22:36	04:04	16:33

#### ◇주간 날씨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	☀	☀	☀	☀	☀	☀
-3/5	-3/5	-2/5	-3/7	-2/7	-3/7	-3/7

## 만점자는 떨어지고 실수한 사람은 합격 이해할 수 없는 고흥군 청정 채용시험

### 탈락자들 의혹 제기...경찰 수사

“100m 달리기에서 넘어졌던 지원자가 만점자들을 제치고 청원경찰에 뽑히다니..”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치러진 고흥군청 청원경찰 채용 체력검사 가운데 1종목인 100m 달리기에서 넘어졌다. 13명이 뛰었는데 당시 넘어졌던 지원자는 A씨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검사는 100m달리기와 뒷물 일으키기, 발굽혀 펴기 등 3개 종목이 있는데 전 종목 모두 만점을 받은 사람은 1명, 2개 종목 만점자는 4명이

A씨가 면접전형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다. A씨가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면접 대상자를 6명까지 확대했기 때문. A씨는 면접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 단 1명 뽑는 고흥군청 청원 경찰에 최종합격했다.

운이 지나치게 좋았던 탓일까. A씨가 최종 합격한 사실을 접한 탈락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 과정이 공평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일 군청을 압수수색해 채용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한 뒤 “2개 종목 만점자까지 면접 기회를 줄 수는 있으나 A씨는 애초 면접 전형 대상자가 될 수도 없었던 것 같다. 채용 담당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채용과정에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달리기에서 1차례 넘어진데다 겨우 한 과목 만점 받은 자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5명 있는데도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1636** 결과 **민음소망** 말하세요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www.golochina.co.kr | 233-9582 (총) 구오말리